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안설비 정기 점검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환자 및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설비를 점검한다. 사진은 3월 10일 시설팀 및 보안설비 점검 관계자들이 121병동에서 마약금고 RFID 태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67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시 현장 리포트 - 의료 시는 어디까지 왔을까'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수술간호팀 한나경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4월 1일(수)
 발표 제771호(2026년 4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조예서(내과간호2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안수민(류마티스내과)
 제유경(진단검사의학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이성현(수술간호팀)
 진소연(암병원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민정(수술간호팀)
 문미영(중환자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서근애(응급간호팀)
 한성식(영상의학팀)

박해숙(중앙공급팀)
 신연희(외과간호2팀)
 조현정(국제교류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69 2026. 3. 15



중증 환자 교육에 구슬땀 흘리는 전문의들

우리 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의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임상강사, 입원환자 전담 진료교수 등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 기반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술기를 익히고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 역량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전문의들이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월 26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된 소아 중환자 술기 교육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규 임상강사들이 소아청소년전문의와 전민교 조교수(왼쪽 세 번째)의 지도로 초음파 유도하 중심정맥관 삽입 실습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4면)

우리 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의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임상강사, 입원환자 전담 진료교수 등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 기반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술기를 익히고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 역량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전문의들이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월 26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된 소아 중환자 술기 교육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규 임상강사들이 소아청소년전문의와 전민교 조교수(왼쪽 세 번째)의 지도로 초음파 유도하 중심정맥관 삽입 실습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4면)

02 NEWS UNIST와 의료 AI 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

12 헬스에디터 스트레스는 몸으로 말한다

10 AMC IN(人)sight 비뇨의학과 서준교 조교수

16 문화·생활정보 올 봄, 건강검진으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요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UNIST와 의료 AI 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



의료 AI 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박종래 UNIST 총장(왼쪽)과 박승일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3월 3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의료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의료 데이터, UNIST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 과학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의료 AI 솔루션 개발을 앞당기고 유기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승일 병원장과 박종래 UNIST 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의료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공동 구축 및 운영 ▲데이터 이용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공동 계약 체결 ▲연구자 대상 인프라 상호 우선 사용 권한 부여 ▲국책과제 공동 수주 및 학술대회·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병원은 UNIST 연구자에게 원내 연구 인프라와 의료 데이터를 개방하고 파일럿 연구용 GPU 자원을 마련한다. UNIST는 대규모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장·처리 시스템과 초대형 AI 모델 학습개발용 대용량 GPU 자원을 우리 병원 연구자에게 지원하며 향후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연산 기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일 병원장은 “차세대 의료 AI 솔루션을 임상 현장에 성공적으로 접목해 중증 환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염증 완화 돕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확인



권미나 교수 이소현 연구원

최근 장내 공생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인체에 이로운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융합의학과 권미나 교수, 이소현 연구원 연구팀은 급성 대장염 실험용 쥐에 인체 유래 프로바이오틱스인 비피도박테리움 아둘레센티스 균주를 2주간 매일 투여한 결과, 체중 감소가 억제되고 대장 길이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현미경 관찰에서도 대장 조직의 염증 지수와 조직 손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장 염증을 완화하는 기전도 규명했다. 유익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이 면역세포인 조절 B세포를 활성화해 항염증 물질인 인터루

킨-10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장내 미생물 연구는 주로 조절 T세포 중심으로 진행돼 유익균이 조절 T세포를 활성화해 염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돼 왔다. 비피도박테리움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어떤 세포 성분이 면역세포를 직접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자·세포 수준의 구체적인 규명이 부족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절 B세포 역시 장 면역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균 자체가 아니라 균의 세포벽 성분인 펩티도글리칸이 조절 B세포를 직접 자극해 항염증 물질 분비를 유도하는 면역 조절 경로를 세계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권미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성분이 장 염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향후 예방 및 보조 치료 전략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장내 미생물」최신호에 게재됐다.

재발 난소암에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 병용 효과



조현웅 조교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는 암세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DNA의 복구 자체를 차단하는 표적 항암 치료제로 난소암 치료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상당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억제제에 내성을 갖게 돼 암이 재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PARP 억제제 치료 이후 재발한 환자군은 후속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낮아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부인과 조현웅 조교수팀이 PARP 억제제를 사용하다가 재발한 백금민감성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억제제와 ‘베바시주맵’을 병행해 투여하자 치료 효과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베바시주맵은 암세포에 저산소 상태를 유도하면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관 신생 표적 치료제다. 저산소 상태의 암세포는 DNA 복구 기능이 약화되는데 이때 DNA 복구를 차

단하는 PARP 억제제의 효과가 강화된다. 두 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연구팀은 PARP 억제제 사용 후 재발한 난소암 환자 44명에게 PARP 억제제인 ‘니라파립’과 베바시주맵을 병용 투여한 뒤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 30명이 6개월 무진행 생존기간(치료제 투여 후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기간)을 달성했다. 또 절반 이상 환자에서 중양 무진행 생존기간은 11.5개월로 나타났다. PARP 억제제를 단독 재투여했을 때 약 4개월 수준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결과다. 특히 직전 항암치료에서 완전 관해를 보였거나 백금계 항암제에 장기간 반응을 유지했던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두드러졌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27.3% 수준이었다. 대부분 용량 조절 등을 통해 관리 가능했으며 그밖의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임상 암 연구」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폐소생술 1시간 내 에크모 시행해야 생존율 높아



심지훈 조교수 이상욱 부교수 김상민 조교수 김원영 교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호흡과 혈액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인공심폐 보조장치인 에크모(ECMO)를 이용한 체외심폐소생술(ECP)을 시행한다. 에크모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환자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에크모 도입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최근 심폐소생술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체외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일반심폐소생술보다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취통증의학과 심지훈 조교수, 이상욱 부교수, 응급의학과 김

상민 조교수, 김원영 교수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18세~80세 환자 270명(일반심폐소생술 99명, 체외심폐소생술 17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심폐소생술 시작부터 에크모 도입까지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60분 이내 에크모를 도입한 환자군은 일반심폐소생술 환자군보다 1년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60분을 초과해 에크모를 도입한 경우는 일반심폐소생술 환자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에크모 도입 시 일반심폐소생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시점은 약 56분까지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에크모를 도입해도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경학적 예후의 경우 심폐소생술 시작 후 40분 이내에 에크모를 시행한 경우에만 유의미한 회복이 관찰됐다. 이는 심정지 후 뇌가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뇌 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크리티컬 케어」최신호에 게재됐다.

중증 환자 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2월 26일 신규 임상강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심정지 상황 대처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문의 중심,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전문의 대상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교육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 임상강사, 입원환자 전담 진료교수 등 전문의 580여 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시뮬레이션센터가 주관하는 전문의 대상 중환자 교육에서는

▲기관 내 삽관, 기관절개관 교환 등 기도 관리 ▲중심정맥관 삽입 및 제거 ▲급성 악화 환자 관리 등 성인 환자 치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술기의 프로토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된다. 임상 케이스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지난해 새롭게 마련됐다. 소아는 성인과 생리적, 해부학적 특성이 달라 술기 난도가 높은 만큼, 신장과 체중 등 발달 상태에 따른 정밀한 처치와 약물 투여법 등을 익히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심정지 대처 교육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상 환경 속 심정지 환자 대응 알고리즘을 자가 학습한 뒤 기본심폐소생술과 고급 심폐소생술(ACLS) 실습에 참여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도훈 시뮬레이션센터소장은 “급격한 상태 변화를 보이는 중증질환 특성상 의료진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숙련된 술기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을 육성해 우리 병원을 찾는 중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외과간호2팀 이재성 주임(왼쪽)이 박승일 병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고객칭찬 우수부서와 4분기 고객칭찬·협업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2월 25일 진행됐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고객칭찬 우수부서에는 ▲심장병원간호팀

143 유닛 ▲외과간호2팀 96 유닛 ▲외래간호팀 외래4 유닛 ▲원무팀 ▲재활의학팀 ▲정형외과가 선정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외과간호2팀 이재성 주임이, 고객칭찬 우수상은 산부인과 고지혜 조교수 등 15명이 수상했다. 협업 우수상은 영상학과 구현정 부교수 등 4명이 받았다.

- 고객칭찬 최우수상** 외과간호2팀 이재성
- 고객칭찬 우수상** 산부인과 고지혜, 방사선종양팀 구중희, 정형외과 김종민, 심장병원간호팀 김지민, 외과간호1팀 신영주, 암병원간호1팀 안은주, 대장항문외과 윤용식, 국제교류팀 이다경, 내과간호1팀 이소연, 어린이병원간호팀 이예은, 암병원간호2팀 이하늘, 암병원간호2팀 임근희, 암병원간호1팀 조정경, 암병원간호2팀 조정민, 어린이병원간호팀 황윤하
- 협업 우수상** 영상학과 구현정, R&D사업팀 김학석, 외과간호2팀 송호상, 약제팀 양사미 (이름 가나다순)

AI혁신지원실 개소



2월 25일 열린 AI혁신지원실 개소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AI혁신지원실이 2월 25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이재환 진료부원장, 김태원 연구원장, 김영학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 양동현 AI혁신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등 의료 전 과정에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우리 병원은 AI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통한 의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AI혁신지원실을 최근 신설했다. 향후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해 의료 AI 체계를 고도화하고 우리 병원이 개발하는 AI의 임상 적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칼럼 8면)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 4기 발족



QPS 히어로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QPS 히어로) 4기 발족식이 3월 5일 동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QPS 히어로는 부서 단위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발족식에는 총 175명이 참가한 가운데 ▲CUSP(종합적 부서단위 기반 안전 프로그램)로 구현하는 가치 기반 의료 강의 ▲QPS 히어로 4기 활동 계획 및 3기 우수 활동 사례 발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레지던트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레지던트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레지던트 시상식이 3월 3일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시한 내 완결률 ▲작성시한 초과 완결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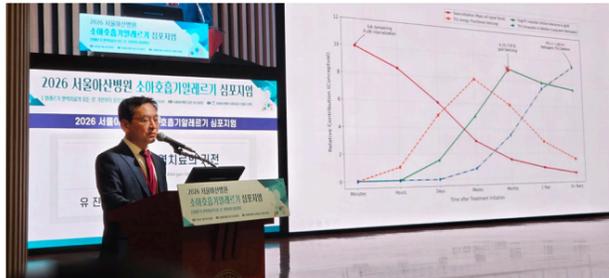
진료과 부문에서는 산부인과가 최우수 진료과로,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대장항문외과·성형외과가 우수 진료과로 선정됐다.

최우수 레지던트에는 내과 조민성 레지던트와 비뇨의학과 나혜준 레지던트가, 우수 레지던트에는 재활의학과 김승민 레지던트 등 12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우수 레지던트는 각각 6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 최우수 진료과** 산부인과
- 우수 진료과 내과계**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계** 대장항문외과, 성형외과
- 최우수 레지던트** 내과 조민성, 비뇨의학과 나혜준
- 우수 레지던트 내과계** 재활의학과 김승민, 소아청소년과 김윤민, 내과 백초원, 신경과 이효영, 가정의학과 정휘원, 정신건강의학과 조형우
- 외과계** 산부인과 권지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윤민지, 외과 이의주, 비뇨의학과 임동훈, 이비인후과 정승조, 정형외과 최상용 (이름 가나다순)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심포지엄



유진호 소아호흡기알레르기센터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센터가 주최하는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심포지엄이 3월 8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 간호사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알레르기 면역치료의 기전과 미래 ▲피하 및 설하면역치료(SCIT/SLIT), 경구면역치료(OIT)의 임상 적용과 준비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유진호 소아호흡기알레르기센터소장은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맞춤형 면역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임상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연수강좌가 2월 22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 2차 의료기관 의료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좌에서는 ▲간담체 질환의 최신 지견 ▲개원가에서 자주 만나는 간담체 이상 소견 ▲개원가에서 자주 만나는 위장관 질환의 치료 전략 ▲위대장 내시경 진단과 합병증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변정식 소화기내과장은 “간, 췌담도, 상·하부 위장관 등 소화기 전문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이번 강좌가 현장의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사례집 발간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최근 5년의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담은 사례집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프로젝트 케이스북'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환자 플로우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노인 환자 친화 진료체계 구축 ▲사용자 중심 물품 개선 ▲오픈 이노베이션 등 우리 병원이 환자와 직원 입장에서 불편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정현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소장은 발간사에서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제안이 모여 큰 혁신을 이끈다. 이번 사례집이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원내 전 부서에 배포됐다.

4기 뉴스룸 필진 10명 위촉

우리 병원 통합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서울아산병원 뉴스룸'의 제4기 필진 10명이 선정됐다.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필진은 진료, 연구, 교육 등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글로 풀어내며 직종 간 이해를 높이고 내부 소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 경험, 환자 중심 조직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도 자신만의 시선과 문체로 직원들과 나누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뉴스룸은 ▲건강 정보 ▲전문가 칼럼 ▲환자와 아산인 이야기 ▲원내 소식 등을 한데 모은 통합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영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해 우리 병원의 글로벌 소통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4기 필진 명단 암병원간호1팀 김치호, 아카데미운영팀 남혜인, 어린이병원간호팀 박정희, 내과간호2팀 부소혜, 건진운영팀 심원섭, 특수검사팀 안대성, 임상의학연구소 임준서, 외래간호팀 정유진, 가정의학과 정휘원, 아카데미운영팀 홍민지 (성명 가나다순)

동 정

양옥진 조교수 버나드 J. 타이슨상



신경과 양옥진 조교수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국제뇌졸중학회에서 버나드 J. 타이슨상을 수상했다. 버나드 J. 타이슨상은 학회에 제출된 연구의 우수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 조교수는 '조기 신경학적 악화를 동반한 소혈관폐색성 뇌졸중에서 뇌백질 고신호강도 병변 부담이 유도 고혈압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장민경·우희진 대리 간호정책제안 공모전서 수상



중환자간호팀 장민경 대리, 응급간호팀 우희진 대리가 지난해 서울시간호사회가 주최한 2025년 간호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장민경 대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관리 간호수가 신설을 제안해 중증 환자 간호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 체계 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우희진 대리는 중증도 연동 간호수가 모델과 탄력수거제 도입 등 환자 결과 중심의 간호수가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해 장려상을 받았다.

인 사

보직임명

재활의학과	교수	전재용	임 : 국제사업부실장
위장관외과	임상교수	유문원	임 : 암병원 암진료부장
종양내과	교수	안진희	임 : 암병원 암진료부장 겸 : 종양내과장
소화기내과	교수	심주현	임 : 암병원 암지원부장
응급의학과	교수	서동우	임 : 응급의학과장 겸 : 응급실장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부교수	김혜리	임 :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장
소아청소년심장과	부교수	백재숙	임 : 소아청소년심장과장
소화기내과	교수	김강모	임 : 간암센터소장
정형외과	부교수	김원림	임 : 육종·희귀암센터소장
산부인과	교수	박정열	임 : 난소·자궁암센터소장
소화기내과	교수	송태준	임 : 담도·췌장암센터소장
종양내과	교수	김규표	임 :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소장
비뇨의학과	교수	유달산	임 : 로봇수술센터소장
치과	교수	안강민	임 : 임플란트센터소장
성형외과	부교수	한현호	임 : 성형외과 의국장
비뇨의학과	부교수	김정권	임 : 비뇨의학과 의국장
가정의학과	임상조교수	조유선	임 : 가정의학과 의국장
응급의학과	교수	유승목	임 : 응급의학과 의국장
핵의학과	부교수	김용일	임 : 핵의학과 의국장
병리과	교수	송준선	임 : 병리과 의국장
종양내과	교수	김정은	임 : 종양내과 의국장
유방외과	부교수	김지선	임 : 유방외과 의국장
소아외과	임상조교수	권용재	임 : 소아외과 의국장
이비인후과	교수	정유삼	임 : 임상연구심의위원장

- 2026. 3. 1부. 신임발령 기준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불우환자 지원		불우환자 지원 (단위: 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기와집 순두부	1,003,714	한금아	300,000
KB오토시스(주)	20,000,000	김세현	100,000,000		
기용정보통신(주)	10,000,000	김찬서	500,000		
김리나	150,000	김찬영	500,000		
김지영	100,000	김현숙	300,000		
김춘옥	300,000	디아이플랫폼(주)	10,000,000		
박수진	10,000,000	송타트업	1,000,000		
박용석	100,000	안정환	100,000,000		
박형준	1,000,000	정혜민	200,000		
유한회사 엔티아이	100,000,000	조영수	5,000,000		
이대성	10,000,000	최영남	300,000		
이선우	150,000,000	최재열	336,233		
이승진	100,000,000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10,000,000				
장윤경	10,000,000				
(주)고려비존	100,000,000				
(주)아주	100,000,000				
해로	520,000				
홍진데이터서비스(주)	1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 등)			
		김희정	10,000,000		
		문홍진	1,000,000		



그림 QWER이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해 최근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우리 병원

에 입원 중인 어린이 팬의 사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QWER은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아들과 미술 활동을 함께하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QWER은 “팬들과 함께 마련한 플리마켓 수익금이 환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 2026년 2월 28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AI혁신지원실, 안전한 의료 AI 활용의 나침반



양동현
AI혁신지원실장

병원 안팎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기술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칫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현장의 AI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올해 1월 22일 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 법령은 의료기기나 디지털 의료기기처럼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에게 대한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해 9월 AI혁신지원실이 신설됐다.

AI혁신지원실의 가장 큰 목표는 의료진이 AI 기술을 더 쉽고 안전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도입 프로세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세분화했다. 과거 의료기기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복잡한 안전성 검증과 신뢰성 확인 과정을 AI혁신지원실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함께 수행한다. 도입 이후에도 기술이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기능하는지 살피며, 현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실질적인 운영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원내에 축적된 방대한 의료 데이터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로 얻은 결과물을 지식

재산권으로 확보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단순히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병원만의 고유한 AI 자산을 구축해 스마트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병원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 AI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의료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AI혁신지원실은 부서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I혁신지원실은 원내 AI 활용을 까다롭게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부서가 아니다. 오히려 각 부서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지난달 개소식을 갖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부서 구성원 모두 분업과 겸직하며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이기에 업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너그러운 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AI혁신지원실은 앞으로 병원 내 AI 도입의 안전벨트이자 가속페달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규제 준수라는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라는 가속을 더해 우리 병원이 의료 AI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병원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여정에 AI혁신지원실이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전문성을 향한 질문, 해외연수에서 답을 찾다

최근 어린이병원간호팀이 직원들의 해외연수 보고회를 열고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용주 대리는 신생아 발달 간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소아 전문 의료기관인 캐나다 토론토 식키즈 병원을 다녀왔다. 이번 연수 현장에서 얻은 배움과 간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계기는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갈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대학원에서 아동전문간호학 과정을 이수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간호사(NP, Nurse Practitioner) 사례를 접했고, 이를 직접 보고 싶은 생각에 해외연수를 준비하게 됐다. 연수 기관을 정할 때는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난도가 우리 병원과 유사한지, 우리 부서가 발전시켜야 할 발달 간호, 가족 중심 간호, 질 지표 관리, 환자 이송 체계 등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신생아중환자실의 중심은 간호사'라는 말이 인상 깊었던 식키즈 병원을 최종 연수 기관으로 선택했다.

연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기를 대하는 태도와 의료진의 팀워크였다. 식키즈 병원은 '34주 미만 아기는 뇌가 충분히 쉬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불필요한 핸들링과 처치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작은 몸을 한 번 돌리는 일에도 두 명의 의료진이 세심하게 움직였

고 34주 미만 아기들의 목욕이나 체중 측정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졌다. 담당 간호사의 관찰과 판단이 치료 과정에 적극 반영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수술 전후에는 환아 곁에서 마취의, 집도의, 주치의, 간호사, 호흡기치료사가 모여 치료 계획을 공유했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 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환아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 이후 임상 현장에서 달라진 점은

이번 연수는 내가 해오던 간호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일상적인 약물 사용 방식, 아기 핸들링, 비약물적 통증 중재 등을 하나씩 되짚어 보며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환자에게 주는 부담은 무엇인지, 간호사가 줄일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됐다. 환자의 생존을 넘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준 높은 간호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은

해외연수는 완벽한 준비보다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보고 배우고 싶은지가 분명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토론토의 풍경을 감상할 새도 없이 2주가 지나갔지만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다. 이번 경험이 나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더 많은 선택지를 건네는 의사



비뇨의학과 서준교 조교수 전립선암과 신장암을 치료하는 서준교 조교수는 덜 침습적인 치료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 환자들에게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술하는 의사로서 수술이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할 때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고 싶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기까지

서준교 조교수는 수술과 약물 치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료과를 고민하다가 비뇨의학과를 선택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선배 교수들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고, 때로는 직접 수술실로 찾아올 만큼 적극적이었다. 협업하는 진료과와 간호사, 중환자팀 등도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였다. “어느 한 파트라도 흔들리면 두려워질 수 있을 텐데 우리 병원에선 얼마나 어려운 수술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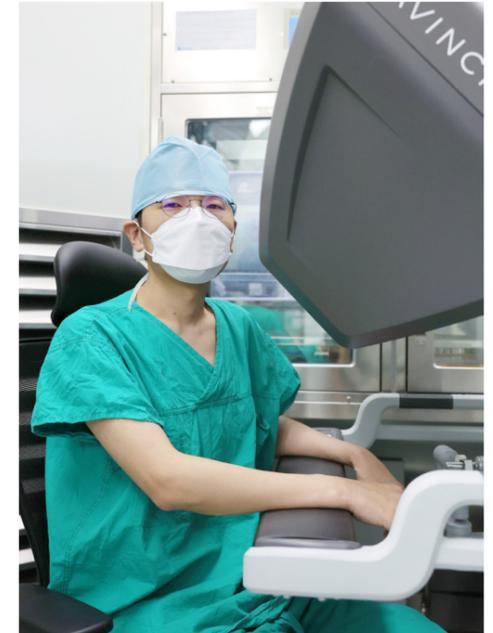
신장암과 전립선암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성 암이거나 재발이나 약물 교체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객관적인 수치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간혹 이러한 내용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그는 수술 외의 선택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료의 부작용과 한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이미 많아요. 저는 부작용이 나오거나 효과가 미미한 집단을 선별하는

연구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 충분한 설명을 마련하고 싶어요.”

소외된 환자들에 대한 책임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라는 지표를 따른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회색 지대의 환자들도 있다. PSA가 높아 암이 의심되는데 정작 조직검사에선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다. 서 조교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거기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가고 있다. “작은 병원에서는 PSA 수치가 높다면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대학병원에선 PSA 수치가 높아도 암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 보내요. 그렇게 여러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반복하다가 온 환자분들은 제 진료 방식을 금방 이해하고 신뢰를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저만의 정보와 선택지를 드리고 환자가 만족할 때 제 일에 대한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특별히 신경내분비성 전립선암에 관심이 많다. 신경내분비성 전립선암은 흔한 질병이 아닌 데다 PSA를 거의 생성하지 않아 진단이나 추적 관찰이 어렵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 환자가 있다. 여러 차례 비뇨기 종양 수술을 받은 후 뇌 전이까지 겪고 있는 환자다. 종양내과에서 주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고민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서 조교수에게 풀어놓는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재발이 됐을 때 다른 진료과에 의뢰하거나 상담 정도로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고비를 추적하며 쌓은 라포가 있기에 심리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특히 드문 암종일수록 자신을 잘 아는 의료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환자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지대가 되고 싶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환자 안전

환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고민은 인공지능 연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AI가 환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활용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2018년부터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동형암호(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기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의료 AI 안정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한창이다. “의료 AI는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환자들의 요구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사들까지 이것이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환자가 어느 플랫폼에서나 자신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환자 안전을 모두 보호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진료와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다. 그 끝엔 환자 안전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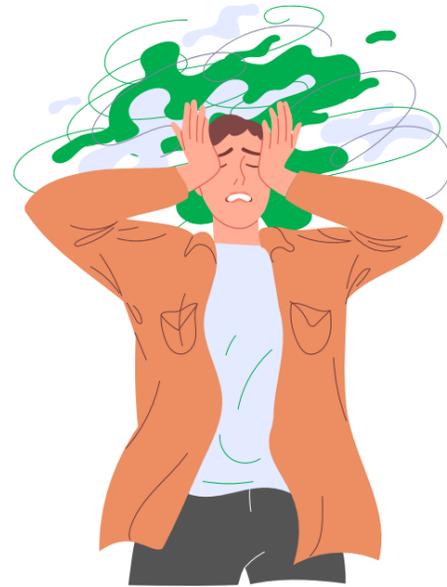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으로 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



'스트레스'는 원래 심리학 용어가 아니다

살다 보면 생계에 대한 걱정, 부모와 자식에 대한 걱정 같은 온갖 스트레스에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일터가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인 스트레스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스트레스는 원래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였다. 이 용어를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로 가져온 사람은 내분비를 연구하던 과학자 한스 셀리에다. 1936년, 그는 쥐를 추위에 노출시키거나 쇼크를 주는 등 쥐를 '못살게 굴면' 흥선, 림프절, 비장 등 면역 관련 기관의 크기가 줄고 위, 소장 등 소화기관 점막이 헐어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셀리에에는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 단어는 물리·공학의 영역을 넘어 오늘날의 보편적 언어가 되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물리·신체적 개념에서 출발했음에도 우리는 이를 흔히 '마음의 문제'로만 이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왜 나만 이럴까'라며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셀리에의 실험이 보여주듯 스트레스에 먼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몸일 때가 많다.

스트레스 때문에 감기가 걸리고 나이가 든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래서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보고돼 왔다.

1991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한 연구는 건강한 성인 42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포함한 설문과 검사를 시행한 뒤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7일간 격리 관찰했다. 그 결과 감기 발병 여부는 나이, 음주, 흡연, 수면의 질, 백혈구 수, 면역글로불린 수치와 같은 신체적 면역 지표와는 뚜렷한 연관이 없었다. 오직 개인이 보고한 스트레스 점수와 관련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면역 저하를 넘어 세포 수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009년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한 반복 DNA 서열로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진다. 이는 마치 신발끈 끝의 플라스틱 캡처럼 염색체라는 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와 사멸을 시작한다. 블랙번은 심리학자 에펠과 함께 만성 질환을 앓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자녀 돌봄 기간이 길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텔로미어가 더 짧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약 10년 더 진행된 텔로미어 단축을 보였다. 이 연구는 2004년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발표했다.

몸과 마음은 하나

처음 병원에서 진료 과목을 표시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전문 분야에 '신체화 장애'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이를 표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전국에 거의 없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 뒤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았다. 놀라운 점은 많은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우리가 정신과 신체가 별개라는 이원론적 관점에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며, 각각은 그 하나의 두 가지 표현 양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사정없이 우리의 몸을 후려친다는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닌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몸을 통해 정신이 회복되는 길도 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고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몸에 깊이 남아 있는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되지 않던 노년의 만성 우울증 환자가 댄스 교실에 다니며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삶의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었지만, 춤이라는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이완시킨 것이다.

오늘도 일터가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방사성의약품제조소 김대현 사원입니다

임상병리사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 인생의 첫 무대는 태권도 경기장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방향할 때 '이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른 것뿐'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제 삶의 2막이 열렸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임상병리학을 전공했고, 그 종착지가 서울아산병원이었습니다. 구성원이 되고 보니 수많은 환자와 직원의 삶을 책임지며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혁신하는 우리 병원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동적인 흐름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침착하고 꾸준한 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진료 현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방사성의약품제조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곳은 핵의학 검사와 치료를 위한 '핵심 엔진'입니다.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진료 일정에 맞춰 정확한 용량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죠. 저는 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표지 반 응과 분주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원료가 완벽한 의약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다만 한번 합성에 들어가면 과정을 되돌릴 수 없어서 "제발!"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간절한 주문처럼요.

특수한 분야다 보니 부서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성의약품은 반감기가 매우 짧고 인체에 직접 투여되어, 작은 실수도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늘 팽팽한 긴장감과 시간과의 싸움이 이어지죠. 예상치 못한 장비 결함이나 변수가 발생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동료들과 늘 이중으로 체크하며 협력하는데, 높은 긴장감이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은 이뤄지고 있나요? 도쿄에 휴가를 갔을 때 만난 여행객과 대화하다가 그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의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매일 만드는 방사성의약품으로 진단과 치료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환자 대면 부서가 아니라 평소 제 업무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온도로 닿는지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무균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정밀한 수치가 누군가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일 수 있겠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확인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특수 분야이기에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요. 부상을 이겨낸 끈기로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는 임상병리사가 된 것처럼, 매 순간 꾸준하게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여운 도마뱀, 뱀뱀이



수술간호팀 한나경 사원



도마뱀을 키우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도마뱀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줄여서 '크레'라고 불립니다. 부드러운 눈매와 독특한 외모가 인상적이었고 그때부터 파충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저의 첫 도마뱀 '뱀뱀이'를 가족으로 맞이했고, 지금은 총 7마리의 크레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뱀뱀이의 매력은

단연 '귀여움'입니다. 어린 개체는 손바닥에 올라올 만큼 작아서 인형처럼 앙증맞고 성체가 되면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져 핸들링(손으로 부드럽게 잡고 교감하는 것)할 때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말랑말랑하면서도 잘 달라붙는 느낌이 좋습니다. 성격도 온순해 공격성이 거의 없고 사람을 무는 일도 드뭅니다. 이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특징은

성격이 온순하고 움직임도 느린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야생에서는 생존이 쉽지 않아 개체 수가 크게 줄어 한때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파충류로 인기를 얻으며 인공 번식이 활발해져 현재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번식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암컷은 한 번 교배하면 정자를 몸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란을 낳는데, 보통 3~4번까지 수정란을 낳습니다.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어린 개체는 크기가 작아 암수 구별이 어렵지만 성장하면서 수컷에게만 나타나는 '천공(꼬리 아래쪽에 보이는 작은 점 모양의 생식 구조)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파충류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파충류 박람회에 방문해 다양한 종을 직접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마뱀은 파충류 전문 매장이나 개인 브리더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데 처음이라면 직접 보고 취향에 맞는 개체를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병원본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 봄, 건강검진으로 나와 우리 가족 건강 지켜요

다가오는 봄, 몸과 마음을 정비하기 좋은 시기다. 정기적인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한 해의 건강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보자.
개인 맞춤 검사부터 전문의 상담까지, 서울과 지역 아산병원의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과 혜택을 소개한다. <편집실>

공통 기본검진 항목

신체계측, 문진, 안과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결과상담 등 (영덕아산병원은 국가검진만 시행)

서울아산병원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 9년 연속 1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간호사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스마트 수진표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줄였으며 15개 외래 분과의 협진을 통해 중증질환 발견 시 신속하게 진료로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검진 프로그램 안내

겨울방학 시즌 패키지

기간 3월 31일(화)까지
대상 만 12세 ~ 만 19세 청소년
직원 자녀 40만원
직원 소개 고객 65만원 (오후검진 기준)

직원 소개 시 누구든 10% 할인 적용

기간 올해 10월까지 (오후검진 한정)

강릉아산병원

7회 연속 우수종합건강검진센터 인증과 보건복지부 최우수 검진의료기관 평가를 받았다. AI 기반 판독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병원 내 진료과로 연계된다. 특히 암은 일주일 이내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 치료가 가능하다.



검진 프로그램 안내

권양아산병원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며 CT 등 추가 검사도 당일 연계가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은 즉시 시술이 어려운 경우 당일 입원을 통해 치료 가능하다. 필요 시 서울아산병원의 검사 기록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검진 프로그램 안내

서울아산병원 직원 우대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 골밀도(여)·호르몬·항산화 검사
+ 내시경·초음파·CT 등 선택검사 3종



우대 프로그램 안내



우리 병원 직원의 금강아산병원 검진 체험기



“건강검진 예약부터 검사 당일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시설과 환경도 쾌적해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직원 우대 혜택으로 선택검사 3종까지 추가했어요. 평소 걱정되던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병원과 동일하게 가족 할인 혜택이 있어 부모님 건강검진까지 예약해 드렸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홍보팀 양광욱 유닛 매니저

건강검진 Q&A

Q. 생활습관에 따라 검사를 추천한다면

A. 고대근무자는 혈압·혈당·지질·갑상선 기능을, 스트레스나 회식이 잦다면 간 기능과 복부초음파, 심전도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주요 항목은 기본 검진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결과표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수치는

A. 암이 의심되거나 즉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개선 가능한 항목을 우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성분 분석, 혈압, 혈당, 지질, 간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경계 범위라면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하기보다 3~6개월간 식습관과 운동을 조정된 뒤 추적검사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진결과 설명 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A. “위내시경은 정상인데 왜 속이 계속 아플까요?”입니다. 건강검진은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뚜렷한 병변이 없더라도 기능성 위장질환이나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검진 결과와 별도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금강아산병원 손현주 가정의학과장

금강아산병원 기간 한정 프로모션

동절기 우대 검진 패키지

내시경/CT, 초음파/동맥경화, 뇌혈관/뇌졸중 검사 중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연령, 근속연수 등 제한 없이 모든 직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기간 3월 31일(화)까지
비용 45만원
구성 기본 프로그램 + 선택검사 3종

청소년 종합검진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검진 프로그램이다.

기간 연중 실시
대상 만 13세 ~ 만 19세 청소년
구성 청소년 기본 검진 20만원
플러스 기본 검진 + 유전자 10종 28만원

문의 02)799-5170, 5172

가정간호가 지켜준 일상

저는 난소암 말기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간호 프로그램으로 어머니의 통증 관리와 일상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담당하시는 정은영 선생님은 장해진 방문간호 외에도 며칠 동안 배액관을 통한 복수량 변화를 세심히 확인해 주었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자 병원에서 배액관 점검을 받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배액관 막힘을 조치할 수 있었고 이후 어머니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큰 병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환자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통합돌봄지원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준 정은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환자분은 암 말기 진단 후 추가 치료 없이 퇴원하신 뒤 통증 조절과 혈액검사, 중심정맥관 및 복수 배액관 관리를 위해 가정간호 방문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드님은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어머니를 곁을 지키며 24시간 정성껏 돌보셨지요. 두 분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통합돌봄지원팀 정은영 가정전문간호사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중환자간호팀 김보배 사원



'자긴 잔 건가?'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는 한번도 반가운 적이 없다. 3월 들어 해는 길어졌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다. 허겁지겁 선크림을 바르고 가방 안에 명찰과 압박 스타킹, 볼펜을 확인한다. 커피와 단백질바를 챙겨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야 숨을 고른다. 창밖으로 새벽녘의 병원이 펼쳐진다. 기숙사에 살면서 누리는 작은 호사라면 병원의 조용한 공기와 교육연구관의 이른 불빛을 지켜볼 수 있는 점이다. 데이 근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엔 이 순간의 지분이 크다. 1년 전 입사할 때만 해도 이 공간에 있는 내가 어색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막막하기도 했다. 완벽하게 간호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두통과 치통으로 돌아왔다. 출근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 나를 충전시켰다. 기숙사에 산다는 건 출퇴근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좋지만, 생활의 중심이 병원이 되다 보니 생각의 중심까지 병원에 머무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제는 적응이 좀 됐는지 출근 전 책 10장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와 같은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오늘 같은 이른 출근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괜찮대 작은 노



기숙사에서 본 새벽의 병원 풍경

력만으로 삶이 알차게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기숙사에서 신경과중환자실까지는 단 5분. 그 사이에 AMIS 어플을 열고 병동에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확인한다. 오늘 근무의 미리보기 버전이다.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들의 이름이 보여 한결 마음이 놓인다. 요즘 담당 환자가 늘면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스스로 주의 버튼을 누르고 '침착&안전' 모드를 찾아가다. 근무복으로 갈아입으며 오늘도 주문을 외운다.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1년째 중환자실로 향하는 나에게 칭찬 카드를 써주고 싶은 아침이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윤성민 레지던트

'컬처 & 라이프' 책 '스다르타'의 '평범한 사람들의 번뇌와 욕망도 삶의 소중한 일부'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암병원간호팀 백일숙 대리

'헬스에디터 - "가스 나왔습니까?"'라고 묻는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장항문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먹고 배출하는 일이 삶에서 얼마나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과간호팀 김가람 대리

'AMC 루키' 코너에서 옆 병동 신입 간호사 선생님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밝게 인사해 주셔서 늘 감사했는데, 인터뷰 속 포부를 보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실 것이라 기대됩니다.

적정진료팀 서기은 주임

'매일 출근 기행'을 읽으며 일상에 쫓겨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32년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김성윤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내과간호2팀 박재형 주임

'SI 현장 리포트'를 읽으며 SI가 의료에 접목되는 변화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료 기술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하게 읽었습니다.